

기도

1.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언제 느끼십니까?

신앙

바이블로 전도서

전도서는 성경의 여러 지혜서 가운데 하나로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도자는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사람은 주제넘게 자기가 삶의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을 아는 체하지 말고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와 기쁨 가운데 누리면 된다. 어제와 내일에 대해 공상하기보다는 오늘을 의식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구역 공과

2021년 5월 30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라

요한일서 2장 7-11절 (15장, 286장)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거리낌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새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7-9절).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주셨던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주십니다.

그런데 옛 계명은 들은 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주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주지 못할 것이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옛 계명을 다시 되새겨서 새 계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요13:34, 35).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을 가르쳐주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책망도 하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끝까지 사랑해주심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이 은혜와 사랑, 생명 살려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고린도전서 13장 4-7절 말씀을 지키면서 서로의 말에 순종하고 아낌없이 베풀면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격 없지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직도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빛인 생명과 구속의 빛을 비추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하는 죄와 마귀에게 붙들린 것이 되어서 빛을 가리고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요일3:15; 요8:44).

빛과 어둠이 공존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이 둘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임을 깨닫고 미워한 것과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참빛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10-11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평안합니다(엡5:9).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마귀의 간계를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 갑니다. 마귀의 역사인데 눈이 가려져서 마귀와 싸우지 않고 다른 대상과 싸우면서 헛된 시간과 힘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함으로 미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함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